



금주의 말씀

창45장 4절-8절



변의석 목사
엘림침례교회 담임

어떤 사람에게 아들과 딸이 있는데 둘 모두 결혼을 했다. 그런데 딸 자랑을 하면서 사위는 밭도, 설거지도, 청소도 잘해준다고 자랑을 했다. 그런데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떠드는 우리 아들에게 청소도, 설거지도 시켜 먹는다고 말하면서 투덜거린다. 왜 그런가? 관점 차이이다. 관점이란 사물을 관찰하거나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이나 생각하는 입장을 말한다. 19세기 최고의 시인 롱펠로우의 아름다운 시를 많이 썼다. 그런데 그는 삶에 많은 고난이 있었다. 두 명의 아내가 죽었다. 그런데도 그는 '인생 찬가' 아

름답게 시를 써 내려갔다. 그는 정원에 심어진 사과나무를 쳐다보며 항상 꽃을 아름답게 피우고 열매를 맺는 모습 속에서 힘을 얻었다 한다. 하나님의 관점은 악하고 병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넓은 땅을 주겠다.' 그리고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를 주겠다.' 하신다. 사실 아브라함은 75세 아내인 사라는 불임여성이었다. 가 능성이 없는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이다. 또 모세를 보라. 모세는 40세가 지는 궁궐에서 왕자로 살았다. 그러나 그는 쫓겨난 신세가 되어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평범하게 살았다. 그런데 그를 80세에 불러내어 노예로 고통 받고 있는 백성을 구출하는데 사용하신 것이다. 또 다윗을 보라. 이스라엘 왕 41명 중 다윗이 가장 탁월한 왕 중의 왕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다윗은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했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그러나 그는 부모님도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었다. 사무엘을 통하여 이새에게 너희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겠다고 아들을 모두 오라고 불렀을 때 아버지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다. 왜일까? 아버지는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인물이 못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요셉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을 통하여 모든 환경을 쳐다보며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고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 그런데도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환경을 보면서 살았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처럼 형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할 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 신앙생활이란 나의 관점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자 하는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관점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온통 답답함과 어두움만 보이는 사방이 가로막힌 그런 현실일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안아주세요. 나를 높여주세요. 하나님의 눈높이로 올려주세요.'라고 말씀드리며 하나님 관점으로 환경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았던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생각해 보자

첫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나에게 항상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요셉의 삶은 참난한 삶이었다. 그러나 요셉은 매 순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았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산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위탁임을 알 수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내 몸과 재능, 자녀, 사업,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 놓으신 것이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고관하지 않았다. 권력을 이용하여 원수를 갚지 않았다. 오히려 선을 배웠고 모든 백성을 살리는 데 역량을 발휘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의 것이로다.' (시 24:1절)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면 최선을 다해서 잘 관리하면서 아름답게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그럴 때 잘했다 칭송된 종아 칭찬해 주시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진정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펼쳐진 일들이었다. 이것을 알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셉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이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애굽으로 보내셨고, 국무총리가 되게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 인생이라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시간과 이 시대를 내게 위탁하신 것으로 받아들여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

〈다윗의 장막〉의 저자인 토미 테니가 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의 제일 앞장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작가는 어린 막내딸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올라 뒀다고 한다. 처음에는 그 안에 여러 가지를 쳐다보며 장난을 치며 즐거워했다. 그런데 한층 한층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계속 타더니 숨이 막힐 만큼 숫자가 늘어났을 때 막내딸 눈앞에는 온통 사람들의 다리와 궁둥이와 핸드백만 보였다. 키가 작은 막내딸은 아빠에게 애원하며 안아달라고 소리쳤다. 답답한 것이다. 아이를 안아 올려서 아빠의 눈높이만큼 올려주자 아이는 평온을 찾았다고 한다.

다. 그래서 행복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드론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넓게 보인다. 펼쳐서 보인다.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보면 달처럼 보인다.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아주 작은 별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내 앞에 있는 현실만 쳐다보고 살 것이 아니라 하늘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와 내게 있는 문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내게 이런저런 일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이다.

둘째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게 위탁하셨다는



한국미술대전 특선 작가 김창남 화백 그림성경



— 92. 스테만의 설교와 순교(행7:1~60)

스테만은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 한 분으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 그는 기독교를 세계화한 최초의 인물이다. 복음이 유대의 국경을 벗어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환란의 바람을 불려 일으켰고 그 바람을 따라 스테만의 순교의 불씨가 수리아 안디옥까지 번져서 그곳에 주민의 교회가 세워졌다(행11:19).

스테만은 대제사장의 심문에 대해서 자신이 믿는 신앙을 구약과 연관하여 설명함으로써 답변하는 말로 설교를 하였다. 스테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요셉을 거쳐 모세에 이르기까지 구약을 요약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스테만은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성박으로 내치고 돌로 칠 때에 스테만은 순교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를 주목하지 않고 돌을 던지는 무리 앞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영성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원수를 위해 기도했던 것이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림=김창남 화백 · 글=김승원 목사)

교육



홍기범 교수
· 한국장조교회회 광주전남지부

옥스퍼드 대학교 내에 소크라테스 클럽이 1941년 12월에 결성되어, 1942년부터 1972년까지 모임을 계속한 학생 클럽이다. 옥스퍼드 대학교 교목이었던 스텔라 알드윈들(Stella Aldwinckle)이 소수의 학생들과 함께 소크라테스 클럽을 설립하기로 하고, (간곡한 요청을 받은) C. S. 루이스가 클럽 의장(President)을 맡아 소크라테스 클럽을 이끌게 되었다. 당시에 C. S. 루이스는 옥스퍼드 대학교 영문학 교수였으며, 기독교 변증가로도 활동했다.

C. S. 루이스의 저서 중, 〈순전한 기독교〉, 〈나니아 연대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등 기독교 변증, 기독교 진리를 소설 형식으로 표현한 문학작품을 포함한 많은 저서가 번역되어 읽히고 있다. 〈예기치 못한 기쁨〉은 자신의 회심 과정을 피력한 자서전이다.

소크라테스 클럽은 학기 중 월요일 저녁에 모여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하여 발표하고 토론을 하였다. 초청받은 연사가 먼저 발표문을 낭독한 후, 지정된 반대자가 반론을 펼친다. 일대일의 발제와 반론이 끝난 후에는 청중석에 있던 학생들과 교수들이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이 이어진

다. 의장인 C. S. 루이스는 논리적 오류를 잡아내는 등 (철저하게 논리와 증거를 따르는) 열면 학술적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

발제자와 반대 토론자와 청중으로 참석한 토론자들은 기독교인, 회의론자, 무신론자 등 제한을 하지 않았다. 참석한 교수들 학생들이 대등하게 논쟁하였으며, "논리가 어디로 이끌던 끝까지 따라간다"는 원칙을 따라 토론하고 논쟁하였다.

앤터니 플루는 1950년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내의 소크라테스 클럽에서, ('신 존재' 의 입증책임이 유신론자에게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한) 〈신학과 반증(Theology and Falsification)〉을 발표하였으며, 이 논문은 대학 논문집에 수록되었다. 1955년에 앤터니 플루는 〈신학과 반증〉을 포함한 〈철학적 신학의 논문 모음집(New Essays in Philosophical Theology)〉을 출판하였다. 〈철학적 신학의 논문 모음집〉에는 앤터니 플루의 견해에 대한 지지자와 반대자들의 논문들이 같이 수록되었다.

엣지 재단(Edge Foundation)의 홈페이지(edge.org)에 들어가 보면, 홈페이지 상단에 엣지 재단의 logo와 Edge 와 함께 To arrive at the edge of the world's knowledge, seek out the most complex and sophisticated minds, put them in a room together, and have them ask each other the questions they are asking themselves. 라는 문장이 나온다. 번역해보면 "세계 지식의 끝에 이르려면,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사고를 하는 이들을 찾아내 한 자리에 모으고, 그들이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을 서로에게 묻게 하라."이다.

지성인들의 비공식적 모임인 리얼리티 클럽(Reality Club)이 중국음식점, 창작 스튜디오(artist studio), 투자은행, 무도장, 박물관, 거실 등에서 모임을 해오다가(1981-1996), 온라인 버전인 엣지 재단(Edge Foundation)이 시작되었다(1996).

엣지 재단에서도 옥스퍼드 대학의 소크라테스 클럽처럼 비공식적인 치열한 토론을 한다. 엣지 재단의 주요 활동 중 하나는 매년 세계적 인지도를 가진 학자들에게 질문을 하여(Annual Question), 답변들을 매년 책으로 출판한다.

2005년도 질문은 "What do you believe is true even though you cannot prove it?"(당신이 증명할 수는 없지만, 사실이라고 믿는 것은 무엇인가?)이었다. 이 질문에 대하여 리처드 도킨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우주 그 어디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과 지능, 창의성, 그리고 모든 '설계'가 다윈의 자연

종교전쟁(7)

선택이 만들어낸 직접적 또는 간접적 산물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설계'라는 것은 다윈적 진화의 과정을 거친 뒤에야 우주에 뒤늦게 등장하는 것이다. 설계는 진화보다 앞설 수 없으며, 그러므로 우주의 근간을 이룰 수도 없다."

인간의 지식은 믿음으로부터 시작한다. 유신론자도 무신론자도 뉴턴 역학이나 맥스웰의 전자기학이 사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관찰과 실험을 통해 증명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신론자인지 무신론자인지에 따라 창조, 진화에 대한 생각이 달라 질 수 있다. 왜냐하면 창조도 진화도 관찰과 실험을 통하여 입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창조도 진화도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이다. 진화론은 입증된 적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이론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러므로 창조-진화 논쟁은 역사전쟁이요 종교전쟁이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건물 매매·임대

광고 문의

T.062) 367-9109
F.062) 367-9108

※ 예배당, 기도원 등 교회 관련 부동산 매매 및 임대광고입니다.



교회 상가건물 매매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군영로 152번길(상가 4층)
• 면적: 대지 62평, 건평 131평
1층 - 인테리어 사무실(인수 후 편의점, 카페 가능)
2층 - 교회 / 3층 - 조정 사무실 / 4층 - 사택
• 금액: 6억(조정가능) * 교회비용무료로 드림(세로에계함)
※ 교회 이전으로 매매, 기도원, 개척교회, 복지시설, 타업종가능 * 주변에 아파트 단지 많음

010-4154-7945

교회 매매

• 위치: 전남 무안군 일로읍 (도청까지 차로 5분거리)
• 면적: 대지 114평 교회 40평 사택 20평
식당, 창고, 화장실,
• 금액: 1억 5천만원
※성물 외 집기포함

010-4630-0091

교회건물매매

• 위치: 북구 설죽로 471번길 77 일곡사거리
북광주세곡 옆-(전철2호선 일곡사거리역 옆)
• 면적: 대지-72평, 건평-110평
1층 주택 30평, 교육관 및 사무실 25평 (화장실별도)
(1층 주택과 교육관 도시기소 보일러 설치됨)
2층 교회 본당 40평
3층 유아실, 방음실 15평 (실지자 대형 종탑)
• 금액: 건물 및 교회비품포함 4억 5천만원

010-2518-8291

교회 매매

• 위치: 송정동 아파트상가 (반지하 통풍, 환기 잘됨)
• 면적: 30평 예배당(주방겸 목양실)
• 금액: 8천5백만원
※성물, 집기포함, 가격조정가능
올리모델링, 교통주차편리

010-5600-8890

교회 매매

• 위치: 북구 운암동 2층
• 면적: 123.2㎡
※텃밭 10평 별도도 있음
※1층일은 2층(공간 넓고 자유로움)
• 금액: 2억원 ※설립 가능
※성물, 음향시설, 기타 생활용품 인수가능

010-8609-7224

교회 임대

• 위치: 남구 백운로 66번길 파리바게트 3층
• 면적: 55평
• 금액: 보증금 1,500만 / 월 60만
※비권임용

010-7488-3375

교회 건물 매매

• 위치: 광산구 신창로(신창지구)
• 면적: 대지 67평 건평 80평
1층-예배당 40평 2층-사택 및 식당 40평
부속건물-중 이층 유아실, 방음실
• 금액: 7억 5천만원(대출 2억5천5백만원포함)
※리모델링친환경 황토 및 편백

010-9661-9099

교회 임대

• 위치: 북항동사무소 맞은편 (목포엘림수양관)
• 면적: 40평 (3층)
• 금액: 보증금 3천만원 월44만원
※조정가능

010-5302-3389

교회 매매

• 위치: 무안군 일로읍 월암리(사랑하는교회) (도청까지 차로 5분거리)
• 면적: 대지114평, 교회40평, 사택20평
• 금액: 1억 4천만원
※식당,창고,화장실
※성물외 자동차스타렉스11인승,집기포함

010-8355-9200

교회 매매

• 위치: 서구 화정동
• 면적: 51평
• 금액: 3억9천5백만원
※차량(동고차) · 고급 비품 포함

010-4875-3474

교회 매매

• 위치: 북구 청소년수련관 부근 3층
• 면적: 대지 56평
1층 교회 2, 3층 주택
• 금액: 6억 5천만원
※서구 일제 포함
※ 수리 후 건물 깨끗

010-8210-5005

토지 매매

• 위치: 전원교회 용도 토지매매
담양군 대전면(북광주 IC부근)
• 면적: 약 2,480제곱미터
• 금액: 1제곱미터당 54만원

010-6425-1491

교회 매매

• 위치: 북구 본촌초등학교 바로 옆 (자신중학교 100M)
• 면적: 대지 82평
1층-예배당 46평 2층-사택 24평
• 금액: 4억 8천만원 ※교회이전으로 인한 금액

010-8616-0191

교회 매매

• 위치: 서구 화정동
• 면적: 51평
• 금액: 3억9천5백만원
※차량(동고차) · 고급 비품 포함

010-4875-3474

교회 매매

• 위치: 북구 두암동(반지하)
• 면적: 100평
• 금액: 2억 7천만원(조정가능)
※기도원 적합
※모든업종가능

010-2620-2654

교회 매매

• 위치: 북구 두암동(반지하)
• 면적: 100평
• 금액: 2억 7천만원(조정가능)
※기도원 적합
※모든업종가능

010-2620-2654